

기도의 능력과 위력

본 문 야고보서 5장 17-18절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즉 문제가 생긴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얻을 날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날을 만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를 하셨고, 새벽이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여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신의 기도를 항상 받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중심 인물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자들로서 평생 해야 될 기도에 대하여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위력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그 필요성을 잠언으로 간단 간단히 알기 쉽게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 안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해를 받는 일이 너무도 많고, 또 기도 안 해서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며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못산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줄 몰라서 신앙 안에 못살고 그 중에서 세상으로 나가 구원을 상실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한 역사요, 인간들에게 준 계시요, 설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으니 모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구절을 찾아 꼭 읽어보아야 됩니다. 10군데, 혹은

20군데만 읽어보아도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고 뜨겁게 감동되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만 집중적으로 해주겠습니다. 잠언으로 주님 말씀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겠습니다. 이 모든 잠언은 예수님이 선생을 중심하여 행한 잠언들도 있고, 섭리사에 그동안 실행했던 것을 생각하라고 주시기도 한 잠언들도 있고, 앞으로도 이같이 하라고 주시는 잠언도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그 영들과 육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산꼭대기에 큰 바위가 보이고, 그 바위에 작은 소나무가 보이고, 그 소나무를 뱀이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족제비만한 뱀이 족제비처럼 뭉실뭉실 털이 났는데, 입을 보니 뱀인데 보통 뱀이 아닌 아주 지독한 뱀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 그 뱀이 나무 위에서 쪽 뻗어 죽고 말았습니다.

말만해도 징그럽고 섬뜩하며, 말로도 듣지 못한 독한 뱀이었습니다. 털이 난 것은 수천 년 수만 년 된 사탄을 말함이고, 뱀이 죽었다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고 그 주관을 받은 나쁜 마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바위는 그리스도요, 나무는 주님께 꼭 붙어사는 시험에 든 자를 말합니다. 산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바람 타는 외로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 다음은 기도 중에 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람들을 뿔로 받고 쫓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하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는 사탄이요, 소 같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보고 소라고 했습니다. (시22;12) 소 같은 성격을 가진 자, 소 같이 행동하는 자들은 소 같은 사탄의 주관을 받아 소 같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괴롭히는 자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소와 같은 사탄을 물리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다음은 어두운 곳에 철길이 보이는데 갑자기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할머니가 치인 것 같다고 하면서 물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개 한 마리가 철길에 깔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끌어내어 보니 개의 하체가 망가지고 상체만 살아서 깨갱거렸습니다. 다시는 걷고 돌아다니지 못할 개가 되었습니다.

개는 사탄이요,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을 상징함이요, 이 같은 사탄의 주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사탄이 다시 괴롭히지 못하게 기도로 심판받음을 말함이요, 분노의 열차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이같이 되니 기도하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잠언으로 말씀하겠습니다.

1. 기도는 사람이 직접 행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천사를 보내어 실행하기 때문이다. 사탄과 귀신을 멸하고, 원수를 소멸하고, 적을 멸하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지진으로 땅과 산을 뒤집어 놓고, 땅속에 간수한 화산이 폭발되고, 태풍을 일으켜 바닷물로 섬과 해변을 멸하고, 의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악인과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고, 홍수로 한 시대를 멸하고, 가뭄을 보내어 강과 대지를 말리고, 후에는 불로 사르며 사람들을 두려운 지옥의 고통으로 심판케 한다. 기도는 인간이 하지만, 행함은 하나님이 하시므로 인간이 행하는 것보다 무섭고 두렵고 웅장한 것이니, 말로 해도 안 들으면 기도를 하여라.
2.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지구 세상 그 어디서든지 거침없이 하나님이 명하여 그 사자들이 가서 실행한다. 주의 이름으로 하였으니 주님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신다. 고로 기도의 위력으로 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높아지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악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며, 마른 땅에 샘이 솟고, 병들어 선고를 받은 자가 건강하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일은 없

다. 기도하면 다 주시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누구든지 어렵다. 기어이 기도해야 승리한다.

3.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듯이 기도해야 된다. 혼자 깊은 샘을 파 물이 솟듯이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나 이같이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못 얻는다. 끝까지 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얻는다.
4. 하나님이 이미 행하심을 늦게 깨닫고 기도하므로 받게도 된다. 혼자 기도해서 됐다고 자랑치 말아라.
5.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주실 때는 땅에서 그것을 깨닫고 원하는 자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조건을 세운 후에 땅에서 풀게 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6. 하나님이 보낸 자는 부지런히 기도하여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땅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과 좋은 일들을 미리 알고,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서 하나님이 속히 처리하게 해야 된다.
7. 자기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는지, 타인이 기도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실행하였는지, 한두 편의 잠언으로는 다 배울 수 없으니 말씀을 들어보아라.
8. 자기 일은 자기가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큰일들은 많은 자들이 기도한 것과 개인의 기도가 함께 이루어진다.
9.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는 큰일이 닥쳤을 때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실행하신다.
10.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일들이라도 그 시대가 왔으면 그 시대 사명자와 따르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
11. 개인적인 일이라도 큰 것은 그 시대 사명자가 기도를 해줘야 이루어진다.
12. 개인 것은 개인이 기도하고, 섭리적인 것은 모두 일심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13.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자들을 보고 기도하여 형벌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온갖 고통을 받

게 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사명자는 기도함으로 자기 사명지까지 다스릴 주권이 있어 선악 간에 행하게 하신다.

14.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구원자들이 받은 사명을 할 때 악인들이 막고 세상이 반대하게 된다. 이럴 때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악인들을 치사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15. 지난날 각자 기도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두 생각해보아라. 알면 기도할 때 힘이 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16. 지난날 하나님이 준 것을 잊고 감사하지 않고, 받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기도해도 잘 안 주신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놓아야 주신다. 자기 사정은 남이 모르니 자기가 책임지고 말씀 듣고 깨닫고 실행해야 된다.
17. 기도하여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다. 받은 것을 잘 써야 되고, 같이 쓸 것은 같이 써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주시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 해야 된다.
18. 기도하여 하나님이 준 것을 귀히 쓰지 못하고 귀히 간직하지 못하면 사탄과 귀신들이나 다른 자들에게 뺏기게 되고, 뺏겼다고 주신 자가 책망하게 된다.
19. 하나님은 성경에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 받으면 귀히 쓴다고 하며 감사해야 된다. 쓴 후에 잘 썼다고 하나님께 그 표시로 무엇인가 해주는 자는 기도할 때 더 주신다.
20.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려고 준비해놓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여 인생 고생하며 사는 자가 3분의 2도 넘는다.
21. 어떤 자는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보다 기도하여 얻은 것이 더 많고, 더 큰 것도 있다.
22.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도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것이다.

23. 기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실상 하나님과 주님과도 멀어진다. 사람 끼리도 대화하지 않으면 결국 멀어지는 격과 같다.
24. 기도를 깊이 해본 자는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25. 형제를 돕고 싶은데 마음만 있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도와주면 진정 기도해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게 주어 형제에게도 주게 하시고, 그에게 직접 주기도 하신다. 네게도 주어 네 영과 육이 의로운 일로 빛이 나게 된다.
26. 기도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과 주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된다.
27. 기도는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를 변화시켜주고, 민족과 세계까지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해 거침없이 행하시기 때문이다.
28. 꿈을 꾸고도 무슨 뜻인지 무슨 계시인지 모른다. 기도하면 은밀히 지혜로 깨닫게 된다.
29. 기도하면 깊은 문제도 알게 되고 해결하게 된다.
30.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고로 절대 믿고 해야 된다. 마치 그 수고는 천 삼, 만 삼, 삼질을 하듯이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된다.
31. 기도의 수고로 얻는 것인데 몇 마디 말로, 몇 시간의 기도로 쉽게 얻어지겠느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도 온종일이 걸리고, 혹은 일주일, 한 달씩 걸린다. 이와 같이 기도도 잠깐의 수고가 아니라 3년 전, 10년 전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 미리 기도해야 할 것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기도했는데도 안 준다고 오해 말아야 된다.
32.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마음과 간구하는 소리까지 모두 자세히 보시고, 받은 후에 어떻게 쓰는지 까지 다 보고 주시니 이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33. 기도해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 법에 어긋나고 자기 부족 때문이다.
34.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으려면 모사와 거짓과 갖은 수단으로 얻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아시니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온전한 기도라야 받고 얻게 된다.

35.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정해놓고 꼭꼭 기도하고, 범사에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36. 기도하여 얻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기도는 확인이다.
37. 작은 것도 큰 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주지만, 큰 것은 더 수고와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다.
38. 기도를 하여도 이미 판국이 기울어진 것은 안 되나, 기도함으로 인하여 닥친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
39.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빨리 펴나가기 때문이다.
40. 주님은 기도하여 받아쓰는 자를 보실 때 자기 애인이 쓰듯이 기뻐하신다. 그러니 기도해도 안 준다고 하지 말아라.
41.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여 받을 것을 평생 못 받고 죽는다.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시니 받아서 모든 자들과 함께 써라.
42. 이것을 구했는데 저것까지 받음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43. 구하고 간구하는데도 자꾸 어려움만 오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받아야 될 환난이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4. 큰 것을 받기 전에는 고통과 환난이 더 극심하게 오기도 한다.
45.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구하여라.
46. 전에 기도했는데 얻지 못했다고 포기 말고 다시 구해보라. 줄 때가 있다. 모르니 밥 먹듯이 잠자듯이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47. 기도하면 앞날에 어떻게 될 것도 은밀히 깨닫게 해주신다. 자기만 알아야 될 것은 말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증거 해야 된다. 이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
48. 눈물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49. 가장 깊은 기도는 자기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50. 사망에 처한 형제들이 나올 때까지 그 실상을 보면서 기도해주어야 된다. 밥도 하다 말면 죽이 되듯이, 기도도 하다말면 목적이 이루어지다 만다.
51.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1시간, 3시간, 10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52. 기도는 영과 육의 죽음까지 뒤바꿔놓기도 한다. 한 마디 절대 믿음의 기도가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
53. 기도하여 영계에 깊이 들어가면 평소 생각나지 않는 것도 즉시 생각나 회개기도도 하게 되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생각이 떠올라 더 깊이 기도하게 된다. 기도할 때 평소 귀히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된다.
54.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처음에 잠생각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귀신의 주관권 단계를 넘어가야 되고, 육적기도와 싸워 넘어가야 되고, 다음은 잠재의식 단계를 거쳐 가야되고, 그 다음은 영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 들어가면서 7단계까지 가서 깊이 기도하게 된다.
55. 기도는 먼저 육적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은 정신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은 영적단계로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다.
56. 솔직한 기도가 잘하는 기도다. 자신도 감동되게 해야 된다.
57. 먼저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충성하며 살겠다고 하나님께 해주는 기도를 해야 된다. 끝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다. 주의 이름으로 간구는 필수적이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죽어주었기 때문이다.
58. 기도할 때 사탄들이나 귀신들이 줄 때가 있어 속아 넘어가기도 하니, 평소 배운 말씀에서 벗어나는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59. 기도할 때 응답 받았어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사탄이 준 깨달음이고 속는 일이다. 사탄은 평소에 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들어온다. 역시 사탄은 무식하고, 그 주관을 받는 자들도 무식하게 행하니 결국 다 들통이 난다.
60. 누구에게나 자기 앞에 알지 못하는 고통과 환난이 도적같이 온다. 고로

기도해야 된다.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진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숨어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는 이를 모르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쇠몽치나 밧줄로 사탄 뒤에 가서 예고 없이 내려치고 목을 졸라매어 기절시킨다. 고로 앞날의 고통 날을 위해 꼭 기도해놓아야 한다. 밤에 자기 전에도 꿈에 사탄과 귀신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자야 된다. 그래야 잠꿈이 안 꺾이고 기분 좋은 꿈을 꺾 희망 있게 한다.

61.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사탄이 자기 주관권에 있으니 잘 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 주관권에 없으니 끌어가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기도만 하면 전문으로 사탄과 귀신을 물리치는 천사나 사자들을 보내어 기도한 대로 처리해주신다. 사탄과 귀신 들린 자와 염소 같은 자들을 양 취급하며 대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해를 받게 된다.
62. 기도해서 그동안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되었고, 사탄과 귀신들도 더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63. 기도 안 하면 그 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삶의 방향을 잃게 된다.
64. 기도를 간절히 한 날은 그 날 얻을 것을 얻게 해주고, 주가 동행하고 자기 수호천사도 열심히 도우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므로 주님도 기뻐 좋아하신다.
65. 기도는 10배, 혹은 100배, 어느 때는 1000배까지 더 얻게 해준다.
66.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열심히 해도 감각을 모르고 주의 뜻인지 확실히 모르고 하게 된다.
67. 기도는 병도 고치게 하고, 악인을 안 만나게 해주고, 담대하게 해주고, 기쁨이 솟게 해주고, 희망을 주고, 삶을 이상적으로 이끌고, 마음천국을 이루게 해주고, 뜻을 찾아가게 해주며, 자기 것을 얻게 해주는 위대한 일을 한다.
68.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실체화 시켜주고, 실체로 이루어져 겪게 해주고, 실감 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여

확실하게 해준다. 자신감을 갖게 하고 믿음을 굳세게 해준다.

- 69. 기도할 때, 열 일 제치고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받을 것도 못 받게 된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게 되어 회개해야 된다. 구원에 문제까지 생기게 된다.
- 70. 매일 새벽에 자기 실력대로 정한 시간동안 기도하며 사는 자는 매일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
- 71. 기도하지 않은 자로 인하여 사탄이 침범하게 되고, 기도한 자까지 연대적 고통을 받게 된다.
- 72.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주님께 매일 말하면서 사는 자다.
- 73.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간다.
- 74. 여기서 나가서 몸으로 할 수 있겠느냐. 오직 기도로 하면 수백 배 일하고, 더 큰일도 한다.
- 75. 기도로 맺힌 한을 풀어라.
- 76.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낸 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 77.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잡을 고기가 많듯이, 깊은 영계 들어가야 기도할 것이 많다.
- 78. 기도할 때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과 같으며, 기도 안 할 때는 걸어가는 것과 같으니 그 얼마나 늦겠느냐. 기도의 위력을 배워 남은 인생을 기도하며 살아라.
- 79. 기도는 전쟁터의 무기요, 생활의 필수품이요, 배고플 때 음식이다. 기도는 옷과 같고, 약과 같으며, 보약이 되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된다.
- 80. 기도는 멀리 있어 보이지 않는 자기를 해하려는 행악자들을 처리시키고, 원수들이 굴복하게 하기도 하고, 적은 숫자로 구름같이 밀려오는 적들을 물러가게 하고, 죽음을 면하게 해준다. 이는 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 81. 자기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한다고 울고 슬퍼하며 걱정 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해주려고 천사까지 불러놓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하기만을 기다리신다.

- 82.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귀찮도록 재판장을 쫓아다니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듯이 하나님께도 그같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셨다.
- 83. 기도하면 원수들이 까마귀 떼같이 쫓아와서 옆에 있어도 안 보여서 못 찾고 물러간다.
- 84. 기도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황을 틀어 그들의 기나긴 수고가 헛되게 하신다.
- 85. 기도하면 사람이 못 오는 곳에 천사가 와서 돕고, 주님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하여 형통케 하신다.
- 86. 기도하는 자는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게 되고, 이 해에도 그 소원을 이룬다.
- 87. 니느웨 성은 기도하여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성은 기도하지 않아 불로 멸망을 받았다.
- 88.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 89. 기도하고 하면 쉽게 된다.
- 90. 모두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 91. 기도 안 하면 사탄과 귀신들이 타락시키고 끌고 다니며, 기도하면 천사가 수종 들고 주님이 동행하신다.
- 92. 기도하고 전도하면 귀한 자를 만나 전도하게 된다. 기도에 대한 잠언은 이외에도 잠언집에 많이 말씀하였으니, 하늘 말 내 말 2집 첫 장에 50가지가 나온다. 그 외에도 수백 개의 잠언으로 말씀했다. 이같이 말씀하여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없다고 원망도 말고, 안 된다고 푸념도 말고, 고생해도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새벽잠언 중에 몇 개만 더 말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목자가 양에게 말했습니다.

“양아~ 양같이 생기지 않은 동물은 모두 참 양이 아니다. 늑대, 여우,

하이에나, 염소, 사자, 이리, 물소 같은 것들이니 양들아, 모두 멀리 하여라. 오직 참 목자만 가까이 하여라. 참 목자라고 하며 거짓으로 참 목자의 이름을 팔면서 말하는 자는 샅꾼 목자다. 참 목자는 양떼 가운데 사람으로 한 명이요, 영으로는 주님밖에 없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파는 자는 마치 이 시대에도 참 목자를 팔고 양의 젖을 짜서 취하는 자들이다. 목자장이 나타나서 모두 그 행위대로 심판하리니 회개해야 구속함에 참여하게 된다.”

중국에 있을 때도 10개월간 어떤 제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찾고 기도함으로 나에게 오셔서 극한 환난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열심을 다하기를 간구합니다.